

실바 매직... GS, 5년 만에 정상 감격



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챔피언결정전 한국도로공사대 GS칼텍스 3차전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GS칼텍스 선수들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지젤 실바와 이영택(오른쪽) 감독이 포용하고 있다.

V-LEAGUE 2025-2026
GS칼텍스가 여자 프로배구 챔피언결정전에서 통산 4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GS칼텍스는 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5전 3승제) 한국도로공사와 3차전에서 세트 점수 3-1(25-19-25-25-20)으로 승리했다.

적지인 김천체육관에서 열린 1차전과 2차전을 잡았던 GS칼텍스는 안방으로 돌아와 한 경기만에 시리즈에 마침표를 찍었다.

GS칼텍스의 챔피언결정전 우승은 2007-2008, 2013-2014, 2020-2021시즌에 이어 4번째다. 또한 햇수로는 차상현 전 감독이 팀을 이끌었던 2020-2021시즌 이후 5년 만이다.

정규리그를 3위로 마치고 프로배구 여자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준플레이오프에서 흥규생명을 따돌린 GS칼텍스는 플레이오프(3전 2승제)에서 현대건설을 2승 무패로 제압했다.

그리고 챔피언결정전에서는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도로공사마저 3전 전승으로 잠재우며 포스트시즌 6전 전승 '무패' 우승을 이끌었다.

정규리그 3위 팀의 챔피언결정전 우승은 2007-2008시즌 GS칼텍스(3승 1패)와 2008-2009시즌 흥규생명(3승 1패), 2022-

챔프전 도로공사에 내리 3승 안방서 통산 4번째 우승 환호 실바 1~3차전 101 득점 'MVP' 정규리그 3위서 대반란 위업

2023시즌 도로공사(3승 2패)에 이어 4번째다.

GS칼텍스는 사상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출전팀의 챔피언결정전 우승' '3위 팀 최초의 챔피언결정전 무패 우승' 기록도 세웠다.

시리즈 내내 GS칼텍스 공격을 이끌었던 지젤 실바(등록명 실바)는 34표 가운데 33표(기권 1표)를 획득해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실바는 챔피언결정 1차전 30득점, 2차전 35득점, 3차전 36득점했다.

정규리그를 1위로 마쳤던 도로공사는 '김종민 감독' 리스크를 결국 넘지 못했다.

도로공사는 챔피언결정전을 앞두고 김종민 감독을 계약 기간이 만료했다는 이유로 내치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했다.

김영래 수석코치를 대행으로 삼아 챔피언결정전에 나섰다. 흔들린 선수단을 수습하지 못한 채 시즌을 마감했다.

1세트는 GS칼텍스의 주포 실바를 앞세운 막강한 화력이 코트를 지배했다. 9-9 동점 상황에서 실바의 킥오픈과 오세연의 블로킹이 연달아 터지며 순식간에 15-9로 달아나 흐름을 완전히 가져온 대목이 결정적인 승부처였다.

GS칼텍스는 이후에도 공수 양면에서 상대를 압도하며 25-15로 가볍게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반격에 나선 한국도로공사는 2세트 막판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18-18 피말리는 접전 상황에서 서브로 나선 이윤정이 날카로운 서브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었고, 이때 김세린이 상대의 공격을 연속으로 가로막으며 단숨에 승기를 잡았다.

도로공사는 이윤정의 서브 타임에만 상대 범실을 묶어 대거 6점을 쓸어 담으며 25-19로 2세트 마침표를 찍었다.

승패 분수령인 3세트 GS칼텍스는 오세연의 신들린 듯한 블로킹과 실바의 부상 투혼을 앞세워 다시 앞서갔다.

오세연은 10-8에서 레티치아 모마 바스코(등록명 모마), 21-17에서 김세린의 속공을 차단해 분위기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실바는 3세트 후반 무릎 통증 탓인지 공격을 때리고 코트에 주저앉기까지 한 뒤에도 교체되지 않고 끝없이 공격을 책임졌다.

실바는 23점과 24점, 25점까지 혼자 책임

져 3세트에서만 10점을 냈다.

4세트 시작에 앞서서 잠시 숨을 고른 실바는 다시 코트에 돌아와 우승을 향한 '25점'을 목표로 강스파이크를 이어갔다.

여기에 3세트까지 잠잠했던 유서연도 4세트 높은 성공률로 실바를 지원했다.

GS칼텍스 벤치는 14-9로 앞선 상황에서 실바에게 마지막으로 체력을 비축할 기회를 주고자 실바-안혜진을 레이나 도코쿠(등록명 레이나)-김지원으로 교체했다.

레이나와 김지원은 20-13으로 경기를 끌고 갔고, 실바는 경기를 마무리하고자 코트에 돌아왔다.

도로공사는 실바에게 공격이 집중될 것을 파악하고 마지막 반격을 시도해 18-22까지 추격했다.

지친 실바는 눈에 띄게 점프가 줄어들어 줄줄이 공격이 막혔다.

여기서 권민지가 강력한 오픈 공격으로 24-19를 만들었고, 마지막 '챔피언십 포인트' 역시 권민지가 책임졌다.

GS칼텍스 실바는 36득점으로 마지막까지 팀 공격을 담당했고 우승을 결정할 마지막 2점을 쏜 권민지는 15득점 했다.

오세연은 혼자 블로킹 득점만 8개 수확하며 상대 공격을 차단했다.

도로공사는 주포 모마가 18득점에 공격 성공률 28.00%로 저조했던 것이 뼈아팠다.

글·사단연합뉴스



고지원은 5일 경기 여주시 데시에나 벨루토CC에서 열린 데시에나 오픈 파이널라운드 3라운드에서 아이언샷을 하고 있다. KLPGA

데시에나 오픈 13언더파 1~4R 내리 1위, 통산 3승

KLPGA 고지원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6시즌 국내 개막전 챔피언이 됐다.

고지원은 5일 경기도 여주시 데시에나 벨루토 컨트리클럽(파72-6586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데시에나 오픈(총상금 10억 원)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3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다. 최종 합계 13언더파 275타를 기록한 고지원은 지난해 신인왕인 단독 2위 서교림(12언더파 276타)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지난해 8월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11월 에스오일 챔피언십에서 2승을 거둔 고지원은 투어 3승을 달성했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1억8000만 원이다.

3라운드까지 2위에 2타 앞선 단독 선두

였던 고지원은 1~4라운드 내내 1위를 놓치지 않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완성했다.

2위 서교림에게 1타 차로 앞서던 고지원은 16번 홀(파5)에서 약 3m 버디 퍼트를 넣고 2타 차로 달아났다. 17번 홀(파3) 티샷이 벙커에 빠지면서 다시 1타 차로 쫓겼다. 그러나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서교림의 약 5m 버디 퍼트가 빗나가면서 고지원의 1타 차 우승이 확정됐다.

올해 투어 신인 양효진이 10언더파 278타, 단독 3위에 올랐고, 2012년생 중학생 아마추어 김서아(신성중)는 9언더파 279타를 기록하며 조아연과 함께 공동 4위에 오르는 선전을 펼쳤다.

이번 대회 초청 선수로 나온 전 세계 랭킹 1위 박성현은 5언더파 283타, 공동 13위에 올랐다.

지난해 대상 수상자 유현조는 2언더파 286타로 공동 26위, 지난해 상금왕 홍정민은 4오버파 292타로 공동 53위다.



손흥민, 생애 첫 4도움 올랜도전 6-0 대승 일등공신 시즌 10경기 만에 11도움 기록

MLS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 로스앤젤레스 FC(LAFC)에서 활약하는 손흥민(33·사진)이 57분만 뛰고도 생애 처음으로 한 경기 4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대승에 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손흥민은 5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올랜도 시티와의 2026 MLS 6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에만 시즌 8-11호 도움을 잇달아 기록하며 LAFC의 6-0 승리를 이끌었다.

손흥민은 토트넘 홋스퍼에서 뛰던 2020년 9월 사우샘프턴과의 2020-202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토트넘 5-2 승)에서 4골을 몰아넣은 적도 있

나 한 경기에서 4개의 도움을 올린 것은 처음이다.

손흥민은 올 시즌 MLS 6경기 7도움에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4경기 4도움(1골)을 합쳐 공식전 10경기 만에 두 자릿수 도움을 기록했다. MLS 도움 부문 선두로도 올라섰다.

다만 득점포는 이날도 터지지 않았다.

손흥민은 새해 첫 경기였던 지난 2월 레알 에스파냐(레알 마드리드)와의 CONCACAF 챔피언스컵 1라운드 1차전에서 페널티킥 9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다.

3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에 합류해 치른 A매치 2연전까지 포함하면 11경기 연속 무득점이다.


治人 治世

고전을 통해 만나는 현대인의 치인치세 해법

선미디어

황종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1


고전, 당신의 생각을 바꾼다



334쪽 | 15,000원

황종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2


고전, 당신의 행동을 바꾼다



336쪽 | 14,000원

황종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3

고전,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324쪽 | 14,000원

화제의 책
★★★★
언론인 출신
인문학자의
고전 해석 통한
사회적 문제점
해법 제시